

Robert Vannoy 박사 , Kings, 강의 11

© 2012, Robert Vannoy 박사 ,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사르밧 과부 엘리야와 구속의 역사 (왕상 17장)

왕상 17:7-24 본문

자, 이제 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24절로 가겠습니다. 본문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시내가 말랐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어서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가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거기에서 나무를 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불러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항아리에 물을 조금 가져다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리고 빵 한 조각을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에게는 빵이 없고 단지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뭇가지 몇 개를 모아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내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네게 있는 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도 만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자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그 여자와 그 가족이 날마다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음이라.”

“ 얼마 후에 그 집 주인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심해졌고 마침내 호흡을 멈췄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엘리야는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를 그 여자의 품에서 받아 그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사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 그리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엎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이 그에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났느니라.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방에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아이를 자기 어머니에게 주며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와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2. 대체의 원리가 작동함 – 왕상 17:7- 24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7-24;
주제는 "교체 원리 작동 원리"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16절까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 첫 부분은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삼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 중의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지방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더라.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며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이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점을 언급하시면서, 만일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메시지를 거부한다면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즉,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교체의 원칙이 다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언약의 의무와 특권을
가지도록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원칙의 개념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거부한 언약의 의무와 특권을 갖도록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일은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으며, 예수께서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자신의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엘리야가 그릿 시내에서 사르밧 으로 이주함

이제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24절까지에서 그 원칙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엘리야가 그릿 시내에서 사르밧으로 이주한 일의 의미 이다 . 우리는 2절부터 6절까지에서 엘리야의 숨김이 계시적 의미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에 대한 리뷰일 뿐입니다. 그 의미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말씀의 집행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계셨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별개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있고, 말씀이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친히 엘리야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의 보존은 그의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를 숨긴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계시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8절과 9절에서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여 명령과 함께 그릿에 있는 은밀한 곳에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장소를 바꾸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시돈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르시되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하여 네게
 식물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의 생애 중 이 시기는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그릿
 시냇가의 시간 이고, 둘째는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치를 바꾸라고 하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행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위치도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행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위치도 바뀌게 됩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르밧과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의 집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설교할 때 단지 엘리야의 상황과 엘리야의 개인적인 필요만을
 고려한다면 당신은 그 요점을 모두 놓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행정에 관한 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봅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십시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이주한
 것의 의미는 첫째, 단지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다는 것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가 새로운 지시를 인내하고 신실하게 기다렸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지시를 참을성 있고 충실하게 기다렸던 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성품과 신실함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단순히 시내가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신 것이라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냇물의 흐름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시냇물의 흐름이 엘리야를 떠나게 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설명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엘리야를 공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단지 엘리야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엘리야에 관한 FB 메이어의 책 엘리야의 상황을 살펴보는 생각은 종종 설교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한 평론가는 이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FB 마이어입니다. FB Meyer는 엘리야에 관한 작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오늘밤 천막을 치고 움직이는 구름과 나팔 소리를 통해 내일 천막을 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광스러운 운명을 위해 여러분을 교육하는 현명하고 신실한 사랑의 지도 아래 있습니다.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성품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최고의 유용성과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건과 조건의 조합 중에서 선택되었습니다. 만약 광범위한 전지적 지식이 모두 당신의 손에

닿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에 관한 마이어의 책 29페이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나는 엘리야 자신의 삶과 상황에 대한 예보다 여기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시냇물이 마르자 그것은 엘리야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첫째, 단순히 시냇물이 마르고 그가 교훈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찾아간 사르밧의 특정 과부는 이스라엘과 다른 곳의 모든 과부들보다 엘리야의 방문을 받을 만한 품격과 경건한 자질을 갖고 있었다는 암시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이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많은 과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녀에게서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나쳐 멀리까지 가신 것은 임의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격의 자질, 더 나은 감사의 실, 영웅주의와 신앙의 불꽃을 소유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으며, 이는 그녀를 모든 슬픔에 잠긴 자매애로부터 구별시켜 주고 선지자의 자유분방한 여주인이자 선지자의 아버지의 은총을 기뻐하는 운반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거기에 진실의 요소가 있다고 다시 생각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그리움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것을 존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부양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스트레스는 엘리야가 오기 전 그 여자의 상태가 아니라, 그녀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 엘리야의 요구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여 무엇을 했는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그의 위치에 관해 명령이 주어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 그릿 으로 가서 거기 숨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그곳에서 너희를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8절과 9절을 보면 주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내가 과부에게 명하여 네게 식물을 주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에게 명령하는 것과 여자에게 명령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부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따라서 그녀의 반응의 진정한 기초는 여성의 타고난 자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구속사적 설교는 그 특성상 인간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신 중심적입니다. 이제 그것은 극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신은

그것이 다른 방향, 즉 인간 중심적인 방향이라는 극단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인간중심적 설교는 그 성격상 적용하기 쉽습니다. Theocentric은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하나님을 높이는 적용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반응 이끌어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비전을 얻습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적인 설교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엘리야가 지지를 받아야 하며, 이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하도록 이방 여인이 선택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까마귀와 시내를 통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부양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인간 도구를 선택하시면 그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우회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그릿 에서 사르밧으로 이주할 때 실행된 대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움직임의 의미는 단순히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특정한 과부의 자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르밧에 있는 특정한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르밧에 밑줄을 긋으십시오! 9절에 보면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르밧은 시돈의 땅이었습니다. 시돈은 이세벨이 태어난 도시이다. 열왕기상 16장 31절: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 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에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시작된 바로 그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시돈은 구속 계시의 역사에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다른 시대의 로마와 같이 참된 믿음에 대한 반대의 중심지였습니다. 시돈은 그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대조를 구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의 심장으로 가십시오. 너희는 사탄의 나라 가운데 거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내 말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였음이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과부에게 주신 약속 그러므로 여호와와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의 하야야 할 일을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맡겼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릿 에서 사르밧으로 이주한 일의 의미에서 먼저 작동되는 교체의 원리를 봅니다 . 둘째, 과부에게 주어진 명령과 약속의 의미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부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가뭄이 이스라엘 국경 너머로 퍼졌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 가뭄이 이스라엘 국경 너머로 퍼졌습니다.

과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10절 이하:

“사렘다로 가서 성문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더라. 그는 그 여자를 불러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항아리에 물을 조금 갖다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가져오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전화해서 '그리고 나에게 빵 한 조각을 갖다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에게는 빵이 없고 단지 통에 가루 한 줍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리이다. 내가 나뭇가지 몇 개를 모아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도록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묻습니다. 그게 13절이었는데, 계속 갔어야 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네 말대로 하라. 그러나 먼저 네게 있는 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신지라 요셉이 그에게 남은 음식을 달라고 하니 . 그리고 그는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는 정말로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방을 넘어 구속사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종의 행동이 모방의 본보기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중 마지막 남은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엘리야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특정 시간과 상황에서 단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나 성경의 어느 곳에서나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은 사람의 전 생애와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한 그 요구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규정이 있는 신명기 26장으로 돌아가십시오 .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여 자기들의 모든 소유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고백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전부 아니면 無도 주시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부양하는 임무도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요구가 약속과 별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비를 땅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통의 기름은 마르지 아니하리라” 요구는 약속과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구는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마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시지만, 자신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에서 보는 것은 항상

유효한 음식과 기름의 공급에 대한 일반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은 기적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중복될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언약의 요구와 언약의 약속이 이 이방 여인의 삶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전하자 언약의 요구와 언약의 약속이 이 이방 여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언약의 축복이 그녀의 믿음과 순종에서 나온다는 점도 주목하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임하자 그녀는 믿음으로 반응하거나 불신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한 대로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그 여자와 그 가족이 날마다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가 그릇 에서 사르밧으로 이주한 의미 와 과부에게 주어진 요구와 약속의 의미에서 작동되는 교체의 원리를 봅니다.

설교 중 과부의 아들의 죽음

셋째, 과부의 집에서 행한 엘리야의 예언 사역의 의의이다. 마지막

부분인 17~24장에서는 아들이 병들고 죽는 부분이 나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읽을 때, 당신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설교하는가?라고 다시 묻게 될 것입니다. 주로 설명을 위해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예시를 위해 주어진 것인가? 우리는 이야기 속 사람들의 삶과 행동에서 파생될 영적, 도덕적 교훈을 찾고 있습니까? 치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정 생활의 시험과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 아래 17절에서 24절을 논하는 이에 대한 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4가지 포인트: 하나, 만족. 해설자는 “그룹이여, 우리는 완전히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식료품 저장실은 맨손으로; 우리 돈이 지쳤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계 수단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원이 풍부하십니다. 천 개의 언덕 위의 소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신뢰하는 한 그는 제 시간에 그것을 배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통 바닥이 굶혔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내일 필요한 만큼만 남을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되 믿음을 위한 기도는 유익하리라.” 그러니 만족하세요.

두 번째는 도발에도 온유함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과부는 자기 집에 구원을 베푸는 사람에게 무분별하고 잔인하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내 죄를 기억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왔습니까?” 이 부당하고 부당한 발언은 선지자를 놀라게 하고 씩씩한 대답을 받았을 수도 있었으나 엘리야는 단지

“네 아들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교훈: 우리에게는 이 실제적인 경건과 노여움 속에서도 온유함이 더 필요합니다.

셋째, 성스러운 빛의 힘입니다. 이 여성의 삶 어딘가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그녀의 모든 기억을 무색하게 만드는 어두운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마음속에 극심한 고통으로 가득 채웠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교훈: 숨겨져 있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잊어버리려는 모든 노력이 언젠가는 소용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별이 올 수도 있고, 쓰라린 상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18절에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오셨나이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빛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넷째, 주는 생명의 비결이다. 성신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명의 영, 곧 부활의 영을 어디든 가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신성한 빛이 그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빛을 주는 비결은 엘리야가 아들을 키울 때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영성을 부여하고 그 능력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점에서 만족, 노여움 속에서도 온유함, 거룩한 삶의 능력, 빛을 주는 비결 등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여러분은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삽화가 이 구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예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구절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종류의 예를 제공하기 위해, 이 이야기의 의미는 당신이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본문을 설교하고 있으며 이 본문을 어떤 진리의 예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구속사 운동의 맥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구절에 나오는 구속 계시의 진행 과정에서 어떤 진전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그 소년의 죽음은 엘리야와 과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면 그녀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안전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으며 밀가루와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녀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 도시와 다른 곳에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안전하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왜 그 소년의 생명을 취하셨는가? -- 그녀의 죄? 그러나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당혹스러운 문제를 야기하는데, 과부와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주님은 왜 그 소년의 생명을 취하셨는가? 왜 그 특별한 소년입니까? 엘리야나 과부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과부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네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왔느냐?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집에 엘리야가 있는 것과 연관시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라고 했습니다. 과부와 엘리야는 모두 주님을 느꼈습니다. 소년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문제는 이유입니다.

과부의 대답은 주님께서 그녀의 죄 때문에 그녀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주님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신 것처럼 그녀도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처럼 이제는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심판이 따랐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느 정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엘리야 탓으로 돌리며 엘리야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엘리야를 통해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다. 엘리야는 생명을 약속했지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순종할 때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이제는 불순종할 때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냐는 질문에 과부의 대답은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에게 먹이를 준 과부를 섬기지만 엘리야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며, 여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그는 실제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18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대하여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하다.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년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개인적으로 과부의 어조와 비슷한 어조로 마치 주님께 “왜 이 과부이고 왜 이 소년입니까?”라고 묻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도

재앙을 안겨 그 아들을 죽게 하였습니까?” 여기에는 순종이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봉사의 삶이지만 죽음; 생계를 약속했지만 소년은 죽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의 예언적 사역은 이방인 과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구속적 역사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의 예언적 사역은 이방인 과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녀의 필요를 위해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역사에는 진전이 있습니다. 교체와 작동 원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이의 죽음으로 엘리야는 과부를 섬겨야 할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는 과부를 섬기는 예언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과부가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주님은 그녀에게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며 그녀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전에는 엘리야가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섬기던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그를 부양하고 부양한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가루와 기름은 주로 엘리야를 부양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과부는 그 마련의 혜택을 누렸지만 그 중심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년의 죽음을 통해 엘리야가 과부를 섬기는 것처럼 주님은 과부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갑니다.

소년이 다시 살아남 그 소년이 다시 살아난 후의 최종 결과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은 여호와와 사람이시며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와 말씀이 진리인 줄 아노라” 보십시오, 그 결과는 이러합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섬기면서 그녀는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렵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통해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신실함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은 두 가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그것은 여자의 약점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와 그의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일이 명백히 모순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왔을 때, 그녀는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약속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네 아들을 죽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비슷한 종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은 두 가지로 작용했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의 약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와 과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힘겹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되어야 함을 알았고 오직 한 가지 길, 곧 그 아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길만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부활 그래서 21절에서 그는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생명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부와 그 아들을 위한 양식에 대한 약속(14절)이 그 기도의 기초였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에 관해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의 심장부인 시돈의 사르밧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거룩하시지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참되시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풍성한 계시는 이야기라는 수단을 통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졌습니다.

작동되는 대체 원리는 엘리야가 그릿 에서 적진의 중심부로 가는 사르밧으로 이주한 의미, 과부에게 주어진 명령과 약속의 의미, 예언 사역의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방법을 예로 들어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an Knechtle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